

사회

피말리는 1분 1초... 기다림이 분노로

■ '천안함' 침몰 나흘째 애타는 가족들

“눈 앞에 있어도 못 구하다니...” 성과 없는 수색에 실신도

“제발 자식들을 구해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대신 차가운 바닷 속에 갇혀있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4일째인 29일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품었던 함미(艦尾) 수색 작업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크게 실망했다. 이날 함미 수색이 시작되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가족들은 실종자 구출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졌다.

구출 출신의 문규석(37) 중사를 비롯, 정종윤(33·곡성) 중사, 강 준(29·고흥) 중사, 이상민(22·순천) 병장 등 전남 출신 실종자 4명의 가족들도 군의 수색작업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이들은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자식들의 생환 소식만을 손꼽아 고대했으나 ‘함미를 잠수요원들이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해군의 오후 발표를 접한 뒤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군의 더딘 수색 작업에 실망한 일

부 가족들은 배를 타고 백령도 인근을 돌며 수색 현장을 직접 지켜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에 대한 기다림이 차츰 분노로 바뀌었다.

정종윤 중사의 아버지 정해균(64) 씨는 이날 실종자 가족 80여명과 함께 ‘성남호’를 타고 침몰 지점 인근 해상을 하루종일 맴돌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눈 한번 불이 지 못한 채 자식 생각만으로 낮이 나간 표정이었다.

정씨는 “군 당국이 밝힌 생존 가능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다”며 “아들이 바로 옆 바닷속에 빠져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차가 떨린다”고 울부짖었다.

정씨와 함께 ‘성남호’를 탄 정 중사의 매형(36)도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릴 조카를 위해서라도 군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지만 하란 말이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시간 2함대 사령부에서 대기 중이던 실종자 가족들도 “부디 ‘내 가족이 배 안에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구조작업을 해 달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날 사령부에서 자식의 생환 소식을 기다리던 정 중사의 어머니(59)는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서 더 이상 할 말도 없다”면서 “제발 내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다 몸이 마비돼 쓰러졌다.

이상민 병장의 아버지 이재우(51) 씨는 떨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며 아들의 모습을 떠오른 듯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씨는 “이렇게 다들 죽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착한 우리 아들을 어서 돌려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또 “구조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부대 측에서 애꿎은 가족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것 같다”며 “어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아버지로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돌아와 안타깝기만 하다”고 울먹였다.

문규석 중사의 아내 한정미(37)씨는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종자를 구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부대 측에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구조작업이 지체되는 이유조차도 말을 해주지 않아 서럽고 원통하다”고 흐느꼈다.

2함대 사령부에 설치된 가족 임시 숙소에는 이날 백령도 사고현장에서 돌아온 70여명이 추가로 합류해 실종자 가족 280여명이 머물고 있다. 이들 가족은 이날 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각계각층에 조속한 구조작업을 호소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천안함’ 침몰 당시 전남 출신 실종자들은 선체의 후미 지하 1층이나 지상 1층에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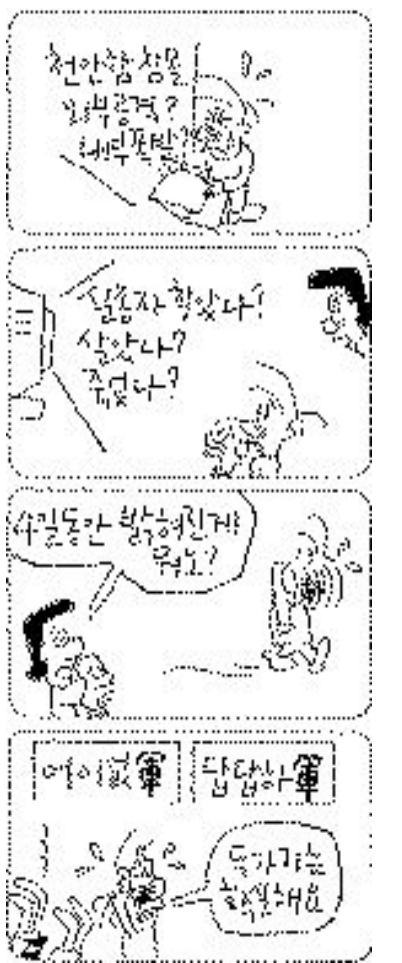
해군 2함대에 따르면 문규석·강 준 중사는 침몰 당시 지하 1층의 중사 휴게실에, 정종윤 중사는 지상 1층의 기관조정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상민 병장은 지상 1층의 사병식당이나 지하 1층의 기관부침실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이종행기자 golee@ /백령도=김형호기자 khh@



오열하는 가족들 해군 조계함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나흘째인 29일 오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군 관계자에게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원침 (8074) 김종두



여성취약 폭행 돈 뺏은 고교생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술에 취한 부녀자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보성고 고교 김모(17·2년)군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 등은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A(여·27)씨를 폭행한 뒤 현금과 지갑 등 40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12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교구 납품비리 수사 교육계 긴장

광주지검, 창조제작업체 5곳 압수수색... 브로커 개입 정황 포착

서울선 수하여행 업체선정 비리 전·현직 교장 157명 적발

검찰이 교육비리 적절 방점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광주지검과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교육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창조제작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수년간 지역 내 일선학교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와 별도로 한 브로커

가 일선 학교에 교구 납품을 알선하고 납품비 일부를 받아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브로커가 청소와 방역 등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광주지역 초·중·고 3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수하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를 받은 서울 S초교 김모(60) 교장 등 현직 교장 48명과 퇴직교장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04명을 같은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또 학생 단체여행 계약을 부탁하며 이들 교장에게 돈을 건넨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경주의 한 유스호텔 대표 진모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S초교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버스 회사 대표 이씨와 유스호텔 대표 진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2천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은 모두 157명이며, 금액은 총 7억2천만원이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

10대 의붓딸 성폭행

3년6개월간 수습차례... 폭행 못이겨 가출

광주경찰 40대 검거

10대 의붓딸을 3년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29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윤모(4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인 윤씨는 지난 2006년 가을께 광산구 월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 A(당시 13세)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습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06년 5월께 B(37)씨와 재혼한 직후부터 아내의 눈을 피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지난해 3월까지 일했던 모텔에서 가치고 나온 피임기구를 이용해 A양을 성폭행했다.

A양은 윤씨의 성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가출했다가 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0차례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정 확한 범행사실을 추궁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고의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탄 19명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손모(29·목포시 용당동·무직)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24·목포시 용해동)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6월 24일 새벽 1시50분께 목포시 대성동 사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30만원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6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목포지역 선·후배인 이들은 자신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우려해 렌터카를 빌려 공범의 차를 추돌하는 가 하면 공범이 탄 택시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부 꾸지람에 굴복 올라가 자살소동

○...부모에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꾸지람을 들은 고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 공동난방용 굴뚝에 올라가 자살소동.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의 높이 50여m 공동난방용 굴뚝 꼭대기에서 광주 모 고교 2년 B(17)군이 난간을 붙잡고 “죽어버리겠다”며 3시간여 동안 소동을 벌이다 119 구조대원들에게 설득돼 굴뚝에서 함께 내려 왔다는 것.

○...B군은 전날 부모에게 “공부하지 않고 PC방에서 놀다 왔다”는 이유로 꾸중을 들은 뒤 이날 오전 집을 나갔으며, 경찰은 실종신고를 한 뒤 아들을 찾은 뒤 부모들에게 B군을 인계.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 주식회사 지티 (G Stock Company Ziti) featuring images of a building and a car. Text includes '각 시·군 대리점 모집' and contact numbers 062-371-7095 and 011-601-7701.

Advertisement for '신승부' (Shinseungbu) featuring images of lottery tickets and a person. Text includes '특하게 배워 한권으로 중수판다!' and '신승부'.